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 만족도

박 현 주¹⁾ · 장 인 순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생의 목표를 생각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회인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전공학업,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 자신의 가치관 수립 및 취업 준비 등 여러 유형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습 뿐 아니라 임상실습을 경험해야 하므로 환자 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 부족, 엄격한 행동규범 등과 관련된 간호학생으로서의 역할 적응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더욱 많은 스트레스에 접하고 있다(하나선, 한금선, 최정, 1998).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으로 우울이 발생할 수 있으며 Morimoto(1999)는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우울을 중요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로 우울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양승희, 2001) 이는 만사에 의욕과 흥미를 잃게 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며 대인관계, 인지, 사회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며, 정서적인 문제에서 행동 및 신체적 증상까지 다양한 기능장애를 가져온다(하은혜, 오경자, 송동철, 강지현, 2004; Ross et al., 2005). 또한 스트레스 및 이와 관련된 우울과 같은 부적절한 반응은 학업수행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대인관

계 및 책임감이 요구되는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하나선 등, 1998).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도록 함은 물론 가치관과 태도, 간호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간호교육과정이다(이정애, 2004). 그러나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 학생에게 심각한 불안과 긴장을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서 기존의 해결되지 않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가지고 실습에 임한다면 가중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실습만족도가 저하될 것이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대처방식이라고 하였다.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의 관련성에 대해 Wong, Leung 및 So(2001)는 비효율적 대처방법과 정신적 불건강 및 다양한 질병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고, Munakata(1996)는 도피적, 악순환적 대처행동이 만성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최영민, 이정호 및 이기철(1996)은 정서중심적 대처방법은 우울과 불안을 낮추지 못하는 것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방법은 우울, 불안 등을 낮추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여 개인의 내적자원으로서의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정체감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이에

주요어 : 간호대학생,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

1) 동의과학대학 조교수

2) 한국성서대학교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agape90@bible.ac.kr)

투고일: 2009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29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27일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는 효율적인 스트레스 중재와 임상실습 만족도향상을 위한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자각 증상과 우울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최미경, 2003), 자아분화 정도와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김정업, 2006),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방식, 성격특성간의 관계(조미경, 정현숙, 2001),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민소영, 정승교, 2006),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김순례, 이종은, 2005)로 주로 개인의 내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에 따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주요 정서적 문제인 우울, 대처방법 및 특히 간호대학생의 학습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스트레스 가중 요인이 될 수 있는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학업상당과 임상실습 교육 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간호교육 실무 지침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목적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정도와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연구대상은 경북지역 일개 전문대학 간호과에 재학 중인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 7주 이상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서, 최종 분석에 사용

된 설문지는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총 258부로 2학년 109명과 3학년 149명이 대상이었다.

연구 도구

● 스트레스

Yeaworth, York, Hussey, Ingle 및 Goodwin(1980)이 개발한 Adolescent Life Change Event Questionnaire(ALCEA)를 박혜숙(1997)이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 22문항, 임상실습에 관한 내용 5문항, 가족관계 등 가정에 관한 내용 18문항, 교우관계 11문항, 자신에 관한 내용 7문항, 이성교제에 관한 내용 10문항 총 73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기초로 간호학 교수 5인의 자문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수정 선택하여 본 질문지는 임상실습 4문항, 자기 자신 6문항, 학교 생활 9문항, 교우관계 5문항, 가정 6문항, 이성교제 4문항의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혜숙(1997) 연구에서 Cronbach's α =.91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35이었다.

● 우울

Radloff(1977)가 제작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 도구를 국내에서 신경림(2001)이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CES-D는 20문항으로 전혀 그런 적이 없다(0점)에서 언제나 그렇다(3점)까지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분포는 0-60점까지이며, 10-19점은 경증우울증, 20점 이상은 중증 우울증으로 해석하였다(신경림, 2001). 4문항은 역산처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경림(2001)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50이었다.

● 대처방법

Cohen(1988)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이해경(2003)이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실정에 맞게 변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문제중심적 대처 11문항, 정서중심적 대처 11문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사용하지 않는다(1점)에서 많이 사용한다(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해경(2003) 연구에서 Cronbach's α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41이었다.

● 임상실습 만족도

이숙재(1980)가 개발하고 이점덕(2006)이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 총 27문항의 5점 척도로 수

정, 보완한 도구를 기초로 간호학 교수 5인의 자문 검토를 통해 대인관계 영역을 추가하여 본 질문지는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8문항, 실습 환경 4문항, 실습 시간 4문항, 실습 평가 5문항, 대인관계 4문항의 총 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점택(2006)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07$ 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는 t-test와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artial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은 2학년이 42.2%, 3학년이 57.8%이었고, 성별은 여학생이 87.2%이었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 43.0%, 기독교 36.4%, 불교 16.3%, 가톨릭 4.3% 순이었다. 간호과 지원동기는 졸업 후 취직보장 46.5%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 및 주변의 권유가 28.3%순이었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하다 47.1%, 보통이다 29.2%, 매우 건강하다 17.9%로 대부분 건강하였고, 대인관계는 좋다가 38.0%, 보통이다 31.4%, 매우 좋다 28.3%로 대부분 문제가 없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36.4%, 보통 34.5%, 매우 만족 14.3%, 불만족 11.6%, 매우 불만족 3.2% 순이었고, 전공에 대한 자신감은 보통 49.4%, 자신 있다 29.6%, 자신 없다 15.5%, 매우 자신 있다 3.9%, 매우 자신 없다 1.6% 순이었으며, 학점은 평점 3.0-3.9가 65.0%, 4.0 이상이 28.3%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82(±.3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8)

Category	n	%	
Year	2	109	42.2
	3	149	57.8
Genders	Male	33	12.8
	Female	224	87.2
Religion	Christian	94	36.4
	Buddhist	42	16.3
	Catholic	11	4.3
	None	111	43.0
Application motivation	High school grade	5	1.9
	Aptitude/Interest	43	16.7
	Job	120	46.5
	Inducement	73	28.3
	Service mind	5	1.9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Others	12	4.7
	Very healthy	46	17.9
	Healthy	121	47.1
	Moderate	75	29.2
	Unhealthy	13	5.0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unhealthy	2	0.8
	Very good	73	28.3
	Good	98	38.0
	Moderate	81	31.4
	Bad	5	1.9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Very bad	1	0.4
	Very satisfied	37	14.3
	Satisfied	94	36.4
	Moderate	89	34.5
	Unsatisfied	30	11.6
Confidence on nursing major	Very unsatisfied	8	3.2
	Very full	10	3.9
	Full	76	29.6
	Moderate	127	49.4
Grade	Little	40	15.5
	Very little	4	1.6
	4.0-	72	28.3
	3.0-3.9	165	65.0
	2.0-2.9	14	5.5
	-1.9	3	1.2

점이었고, 우울 정도는 60점 만점에 평균 19.23(±7.70)점, 대처방법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 2.42(±.42)점이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81(±.41)점이었다. 영역별로는 스트레스에서 임상실습이 평균평점 3.47(±.55)점, 자기 자신이 2.90(±.69)점, 학교생활이 3.77(±.54)점, 교우관계 2.42(±.63)점, 이성교제 2.48(±.84)점이었다. 대처방법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가 평균평점 2.60(±.46)점이었고, 정서중심적 대처가 2.25(±.50)점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실습내용이 평균평점 2.84(±.37)점, 실습지도 2.66(±.57)점, 실습환경 3.09(±.56)점, 실습시간 3.05(±.58)점, 실습평가 2.54(±.62)점, 대인관계 2.71(±.76)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N=258)

Variables	Mean	SD	Min	Max
Stress				
Clinical practice	3.47	.55	2.00	5.00
Self	2.90	.69	1.00	5.00
Adjustment to school	3.77	.54	1.22	5.00
Friend relationship	2.42	.63	1.00	4.60
Family	1.91	.61	1.00	3.83
Boyfriend(or girlfriend)	2.48	.84	1.00	5.00
Total	2.82	.39	1.79	3.85
Depression				
	19.23	7.70	0.00	45.00
Coping styles				
Problem-focused coping	2.60	.46	1.09	4.00
Emotional-focused coping	2.25	.50	1.09	4.00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Content	2.84	.37	1.83	4.00
Guidance	2.66	.57	1.00	4.29
Circumstance	3.09	.56	1.00	4.33
Hours	3.05	.58	1.00	4.25
Evaluation	2.54	.62	1.00	4.60
Relationship	2.71	.76	1.00	4.67
Total	2.81	.41	1.69	3.7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주관적 건강상태(F=7.800, p=.000), 대인관계(F=14.857, p=.000), 전공만족도(F=5.209, p=.000), 전공에 대한 자신감(F=6.283,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정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군이, 대인관계가 나쁠수록, 전공만족도와 전공자신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우울정도는 주관적 건강상태(F=8.017, p=.000), 대인관계(F=11.230 p=.000), 전공만족도(F=4.717, p=.001), 전공에 대한 자신감(F=4.98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정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대인관계가 나쁜 군이, 전공만족도와 전공자신감이 낮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대상자의 문제중심적 대처는 학년(t=-2.295, p=.023), 종교(F=8.264 p=.000), 간호과 지원동기(F=4.925, p=.000), 전공만족도(F=7.711, p=.000), 전공에 대한 자신감(F=4.753, p=.001), 학점(F=5.95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

<Table 3> Stress, depress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8)

Category	Stress			Depress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Year	2	2.81±0.38	-0.605	.546	18.84±7.58	-0.662	.509
	3	2.84±0.40			19.51±7.81		
Genders	Male	2.74±0.42	-1.334	.183	18.10±7.62	-0.858	.392
	Female	2.84±0.38			19.37±7.73		
Religion	Christian	2.87±0.41	1.385	.248	19.97±8.34	0.517	.671
	Buddhist	2.86±0.37			18.50±7.36		
	Catholic	2.80±0.42			18.00±6.08		
	None	2.77±0.37			18.99±7.44		
Application motivation	Highschool grade	3.05±0.63	1.311	.260	24.00±4.90	0.560	.731
	Aptitude/Interest	2.76±0.38			19.45±7.64		
	Job	2.81±0.37			19.09±8.14		
	Inducement	2.83±0.40			19.32±7.38		
	Service mind	3.07±0.55			16.25±7.80		
	Others	2.97±0.35			18.17±6.99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Very healthy	2.72±0.36 ^a	7.800	.000	15.90±7.83 ^a	8.017	.000
	Healthy	2.76±0.36 ^a	a<b		17.93±7.19 ^b	a<b<c	
	Moderate	2.93±0.37 ^a			22.05±7.25 ^b		
	Unhealthy	3.07±0.48 ^a			24.25±6.84 ^b		
Very unhealthy	3.72±0.19 ^b			28.50±2.12 ^c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2.63±0.34 ^a	14.857	.000	15.90±7.12 ^a	11.230	.000
	Good	2.82±0.35 ^b	a<b<c<d		19.27±7.67 ^a	a<b	
	Moderate	2.96±0.39 ^c			21.27±7.00 ^a		
	Bad	3.34±0.41 ^d			30.17±4.31 ^b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Very satisfied	2.61±0.32 ^a	5.209	.000	14.69±6.72 ^a	4.717	.001
	Satisfied	2.86±0.34 ^a	a<b<c		19.66±7.79 ^b	a<b<c	
	Moderate	2.81±0.40 ^a			19.76±7.74 ^b		
	Unsatisfied	2.90±0.45 ^b			20.57±6.06 ^b		
	Very unsatisfied	3.22±0.46 ^c			24.50±9.07 ^c		

<Table 3> Stress, depress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continued)

(N=258)

Category		Stress			Depression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Confidence on nursing major	Very full	2.67±0.48 ^a	6.28	.000	11.88±5.84 ^a	4.984	.001
	Full	2.69±0.38 ^a	a<b<c		17.76±7.21 ^b	a<b<c	
	Moderate	2.87±0.36 ^a			19.59±8.14 ^b		
	Little	2.94±0.39 ^b			22.28±5.75 ^b		
	Very little	3.35±0.42 ^c			26.67±4.93 ^c		
Grade	4.0-	2.82±0.40	1.041	.375	18.35±7.37	0.724	.538
	3.0-3.9	2.82±0.38			19.37±7.97		
	2.0-2.9	2.85±0.40			21.43±7.49		
	-1.9	3.21±0.50			21.00±1.41		

<Table 4> Problem-focused coping, emotional focused cop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58)

Category		Problem-focused coping			Emotional focused cop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Year	2	2.52±0.47	-2.295	.023	2.17±0.49	-2.088	.038	2.83±0.40	0.717	.474
	3	2.65±0.44			2.30±0.51			2.80±0.41		
Genders	Male	2.59±0.45	-0.079	.937	2.25±0.54	-0.014	.989	3.07±0.44	3.841	.000
	Female	2.60±0.46			2.25±0.49			2.78±0.38		
Religion	Christian	2.75±0.41	8.264	.000	2.49±0.45 ^a	17.213	.000	2.85±0.44	2.721	.045
	Buddhist	2.61±0.52			2.21±0.51 ^b	a>b>c		2.66±0.42		
	Catholic	2.70±0.42			2.42±0.61 ^a			2.74±0.33		
	None	2.45±0.43			2.04±0.43 ^c			2.85±0.36		
Application motivation	High school grade	2.27±0.45 ^a	4.925	.000	2.29±0.87	2.696	.022	2.55±0.46	1.785	.116
	Aptitude/Interest	2.77±0.39 ^b	a<b<c		2.34±0.50			2.87±0.43		
	Job	2.63±0.42 ^b			2.30±0.46			2.84±0.41		
	Inducement	2.45±0.49 ^b			2.10±0.49			2.78±0.38		
	Service mind	3.05±0.56 ^c			2.65±0.94			2.42±0.44		
	Others	2.48±0.36 ^b			2.11±0.48			2.84±0.28		
Perceived physical health status	Very healthy	2.69±0.38	1.197	.313	2.25±0.44	1.073	.370	2.84±0.46	2.709	.031
	Healthy	2.60±0.46			2.24±0.50			2.88±0.37		
	Moderate	2.54±0.51			2.26±0.51			2.73±0.39		
	Unhealthy	2.52±0.36			2.13±0.57			2.63±0.48		
	Very unhealthy	2.91±0.00			2.91±1.16			2.48±0.71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2.71±0.44	2.640	.050	2.22±0.50	1.141	.333	2.88±0.42	4.195	.006
	Good	2.59±0.41			2.27±0.44			2.87±0.38		
	Moderate	2.51±0.48			2.22±0.55			2.69±0.38		
	Bad	2.51±0.76			2.59±0.86			2.66±0.53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Very satisfied	2.92±0.41 ^a	7.711	.000	2.42±0.42	3.550	.008	3.07±0.40 ^a	9.626	.000
	Satisfied	2.63±0.39 ^b	a>b>c		2.30±0.45			2.87±0.38 ^b	a>b>c>d>e	
	Moderate	2.50±0.46 ^c			2.14±0.53			2.76±0.37 ^c		
	Unsatisfied	2.43±0.48 ^c			2.11±0.57			2.57±0.36 ^d		
	Very unsatisfied	2.43±0.55 ^c			2.51±0.62			2.48±0.48 ^c		
Confidence on nursing major	Very full	3.01±0.44 ^a	4.753	.001	2.41±0.41	1.735	.143	2.85±0.54 ^b	4.788	.001
	Full	2.70±0.46 ^b	a>b>c		2.35±0.49			2.95±0.43 ^a	a>b>c	
	Moderate	2.56±0.43 ^b			2.18±0.4			2.79±0.35 ^b		
	Little	2.44±0.47 ^c			2.22±0.52			2.68±0.39 ^b		
	Very little	2.59±0.31 ^b			2.36±0.98			2.38±0.56 ^c		
Grade	4.0-	2.74±0.46 ^b	5.954	.001	2.27±0.47 ^a	4.800	.003	2.84±0.43 ^a	5.358	.001
	3.0-3.9	2.54±0.43 ^a	a<b<c		2.23±0.50 ^a	a<b		2.84±0.37 ^a	a>b	
	2.0-2.9	2.38±0.39 ^a			2.19±0.48 ^a			2.67±0.49 ^a		
	-1.9	3.12±0.76 ^c			3.30±0.62 ^b			1.97±0.13 ^b		

정 결과 봉사정신으로 간호과를 지원한 경우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학점이 평균 평점 1.9 이하인 군이 다른 군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정서중심적 대처는 학년($t=-2.088, p=.038$), 종교($F=17.213, p=.000$), 간호과 지원동기($F=2.696, p=.022$), 전공만족도($F=3.550, p=.008$), 학점($F=4.800, p=.00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정 결과 종교가 있는 군이, 학점이 평균 평점 1.9 이하인 군이 다른 군에 비해 정서중심적 대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F=3.841, p=.000$), 종교($F=2.721, p=.045$), 주관적 건강상태($F=2.709, p=.031$), 대인관계($F=4.195, p=.006$), 전공만족도($F=9.626, p=.000$), 전공에 대한 자신감($F=4.788, p=.001$), 학점($F=5.35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 검정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공만족도와 전공자신감이 높을수록, 학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관계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임상실습 만족도간의 편상관 관계분석 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우울($r=.520, p=.000$)과 순상관계가 있고, 문제중심적 대처($r=-.132, p=.034$), 임상실습 만족도($r=-.244, p=.000$)와 부적상관계가 있으며, 우울은 임상실습 만족도($r=-.134, p=.039$)와 부적상관 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문제중심적 대처는 정서중심적 대처($r=.521, p=.000$)와 순상관계가 있고, 우울($r=-.189, p=.003$)과 부적상관 관계가 있으며, 정서중심적 대처는 우울($r=.187, p=.003$)과 순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주요 정서적 문제인 우울, 대처방법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계를 파악하여 학업상담과 임상실습 교육 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간호교육 실무 지침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최대평점 5점에 대해 2.82(±.39)점으로 간호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박혜숙(1997)의 2.15점(5점), 이해경(2003)의 2.11점(4점), 다른 도구를 사용한 김정엽(2006)의 2.50점(5점)보다 높았다. 영역별로는 임상실습, 자기 자신, 학교생활, 교우관계, 이성교제 순으로 인간관계보다 학업과 임상실습이 더 높게 나타나 이해경(2003), 김정엽(2006) 연구와 유사하나, 조미경과 정현숙(2001)의 연구에서는 이성 관련 문제, 가족, 친구, 자신, 학교관련 요인 순서로 나타나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미경과 정현숙(2001)의 연구는 일반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기인한 차이로 생각되며 결국 간호대학생들은 타과 학생들에 비해 국가고시와 임상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간관계보다는 학업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60점 만점에 평균 19.23(±7.70)점으로 약간의 우울 정도를 나타내어 간호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김경희와 김희정(2006)의 21.5점(63점 만점)과 비슷하였고, 4.00점(7점 만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우울 정도를 나타낸 이화인(2008)의 결과와는 달라 간호대학생의 우울 정도가 다양함을 나타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약간의 우울 정도는 적극적으로 대처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대상자의 특성과 관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는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전공만족도와 스트레스 간에 차이를 나타낸 김순례와 이종은(2005)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경제 상태, 거주형태, 학교생활 만족과 우울 간에 차이를 나타낸 이화인(2008)의 연구 결

<Table 5> Correlation amo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N=258)

	Stress(p)	Depression (p)	Problem focused coping(p)	Emotional focused coping(p)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p)
Stress	1.00	.520*** (.000)	-.132* (.034)	.112 (.072)	-.244*** (.000)
Depression		1.00	-.189** (.003)	.187** (.003)	-.134* (.039)
Problem-focused coping			1.00	.521*** (.000)	.071 (.262)
Emotional-focused coping				1.00	-.006 (.919)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1.00

* p<0.05, ** p<0.01, *** p<0.001

과와는 달랐으나 이는 설문도구의 차이로 사료된다. 즉, 건강과 대인관계가 나빠져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때 스트레스와 우울이 증가하며, 적절한 중재가 없을 경우 의욕 상실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키며 궁극에는 간호사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입학초기부터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대처방법은 최대평점 4점에 대해 2.42(±.42)점이며 영역별로는 정서중심적 대처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의 사용 정도가 높았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이해경(2003) 연구에서 대처방법은 2.36점(4점)이었고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중심적 대처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김정엽(2006) 연구에서도 문제중심적 대처의 사용 정도가 더 높았으며, 김순례와 이종은(2005) 연구에서 대처방법 평균은 3.20점(5점)이었고,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탐색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 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찾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행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상자의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방법 모두 학년, 종교, 간호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학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 학년은 김순례와 이종은(2005)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요인으로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많은 학습 및 임상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간호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전공과목에 만족하는 경우 내적 신념과 의지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정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학점이 평균평점 1.9이하로 낮은 군은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 모두 정도가 높게 나타나 학점과 대처정도 간에 상관이 없음을 보인 이해경(2003)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대처는 적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간변인으로 매개적 역할을 하며 또한 대처는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받으며 스트레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며, 대처에 인지적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하나선 등, 1998; Folkman & Lazarus, 1986), 본 연구에서도 성적이 낮은 대상자의 경우 다양한 대처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최대평점 5점에 대해 2.81(±.41)점이었으며, 간호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이정옥(2003)의 2.98점(5점), 다른 도구를 사용한 김은하와 오윤희(2000)의 2.96점(5점), 서원희(2007)의 2.64(5점)과 비교할 때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중간 이상이였다. 영역별로는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내용, 대인관계, 실습지

도, 실습평가 순으로 대체로 실습내용과 평가부분의 만족도가 낮은 점이 이정옥(2003), 서원희(2007)의 연구와 유사하였고, 실습장소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김은하와 오윤희(2000)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습기관에 따른 환경적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년별로 차별화 없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습내용에 대한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며 평가는 학점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모든 학생들의 최대의 스트레스 및 불만족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론과 임상실정에 맞게 학년별, 단계별, 실습지별로 성취해야 될 실습내용에 대한 편성이 이루어지고, 여러 실습내용 중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 평가가 차별화되는 것과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 체계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자신감, 학점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전공만족도는 김은하와 오윤희(2000), 이정옥(2003) 연구에서도 공통으로 확인된 요인이다. 즉, 전공만족도와 전공자신감, 학점이 높은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임상현장에서 경험해보려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고 이론적 지식도 풍부하여 임상실습을 통하여 더욱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와 서원희(2007)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습만족도가 높은 결과는 좀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스트레스와 대처방법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이해경(2003), 김순례와 이종은(2005)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처방법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의 사용은 우울과 부적상관 관계가 있는 반면, 정서중심적 대처의 사용은 우울과 순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중심적 대처방법이 우울, 불안 등을 낮추는 영향력이 있는 것에 비해 정서중심적 대처방법은 우울, 불안 등을 낮추지 못한다고 보고한 최영민 등(1996)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문제중심적 대처방법과 스트레스간의 부적상관관계, 정서중심적 대처방법과 스트레스간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정엽, 2006), 이는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Folkman과 Lazarus(1986)는 스트레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문제중심적 대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정서중심적 대처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고, 정서중심적 대처를 많이 이용하는 대상자의 경우 문제중심적 대처유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우울의 정도가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는 적게 사용하고, 정서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업 상담과 임상실습 지도 시 먼저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며,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지 체계 마련과 학생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적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간호교육 실무 지침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임상실습을 최소한 7주 이상 마친 학생 266명이었으며 자료분석은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총 258부의 설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artial correlation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82점이었고, 우울 정도는 60점 만점에 평균 19.23점, 대처방법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 2.42점이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81점이었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는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우울정도는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자신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학년, 종교, 간호학과 지원 동기,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자신감, 학점에서, 정서중심적 대처는 학년, 종교, 간호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학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 전공에 대한 자신감, 학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우울($r=.520, p=.000$)과 순상관관계가 있고, 문제중심적 대처($r=-.132, p=.034$), 임상실습 만족도($r=-.244, p=.000$)와 부적상관관계가 있으며, 우울은 임상실습 만족도($r=-.134, p=.039$)와 부적상관 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문제중심적 대처는 정서중심적 대처($r=.521, p=.000$)와 순상관관계가 있고, 우울($r=-.189, p=.003$)과 부적상관 관계가 있으며, 정서중심적 대처는 우울($r=.187, p=.003$)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연구결과 전문대 간호대학생은 학업과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 시 우울이 증가하고, 문제중심적 대처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떨어지며 또한 문제중심적 대처의 사용은 우울과 부적상관 관계가 있는 반면, 정서중심적 대처의 사용은 우울과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우울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적 대처방법에 대한 인지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우울을 중재할 수 있는 문제중심적 대처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둘째, 개인의 대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희, 김희정 (2006). 치료레크리에이션이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5(4), 500-507.
- 김순례, 이종은 (2005).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1), 98-106.
- 김은하, 오윤희 (2000).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2), 186-198.
- 김정엽 (2006). 간호학생의 자아분화 정도와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238-247.
- 민소영, 정승교 (2006). 간호학과 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간호학회지*, 15(3), 299-307.
- 박혜숙 (1997). 간호학생의 스트레스원, 인지정도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간호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가톨릭상지전문대학논문집*, 27, 1-43.
- 서원희 (2007). *간호전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실습 만족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구.
- 신경림 (2001). 한국여성의 우울증상 실태조사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1(3), 391-400.
- 양승희 (2001). 일부 3년제 간호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0(3), 379-390.
- 이숙자 (1980).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10(2), 41-52.
- 이점덕 (2006). *프리셉터지도를 받는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및 임상실습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 이정애 (2004).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간호행정학회지*, 10(3), 325-334.
- 이정옥 (2003). *간호대학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구.
- 이혜경 (2003).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4), 586-593.
- 이화인 (2008). 간호대학생의 자존감 및 우울과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1), 97-107.
- 조미경, 정현숙 (2001). 일 전문대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방식, A/B 성격특성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7(2), 183-191.
- 최미경 (2003). 대학생의 자각증상과 우울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3(3), 433-439.
- 최영민, 이정호, 이기철 (1996).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직장인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5(6), 1376-1385.
- 하나선, 한금선, 최정 (1998).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 유형, 스트레스 반응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28(2), 358-369.
- 하은혜, 오경자, 송동철, 강지현 (2004).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청소년을 위한 집단 인지행동치료 효과의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263-279.
- Cohen, B. J. (1988). Assessing stress and coping in nursing students. In Waltz, C. F. & Strickland, O. L.(Eds.), *Measurement of nursing outcomes: Vol 3. Professional development in education and practice*, 323-348.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Folkman, S., & Lazarus, R. S. (1986). Stress-processe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 Abnorm Psychol*, 95(2), 107-113.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Munakata, T. (1996). *Behavioral science in health and illness*. Tokyo: Meijikarufurendosha.
- Morimoto, K. (1999). Life and stress of modern people. In T. N. Kawano & T. H. Kuboki(Eds.), *Problem and coping of stress*, 46-59, Tokyo: Shibundo.
- Ra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l Meas*, 1(3), 385-401.
- Ross, R., Zeller, R., Srisaeng, P., Yimnee, S., Somched, S., & Sawatphanit, W. (2005). Depression, stress, emotional support and self-esteem among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 Thailand. *Int J Nurs Educ Scholash*, 25, 124-134.
- Wong, D. F. K., Leung, S. S. K., & So, C. K. (2001). Differential impacts of coping strategies on then mental health of chinese nurses in hospitals in Hong Kong. *Int J Nurs pract*, 7(3), 188-198.
- Yeaworth, R. C., York, J., Hussey, M. A., Ingle, M. E., & Goodwin, T. (1980). The development of an adolescent life change event scale. *Adolescence*, 15(57), 91-97.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Park, Hyun Joo¹⁾ · Jang In Sun²⁾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College

2)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Korean Bible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Method:** Two hundred fifty-eight nursing college students in 1 city were selected by convenient sample. A questionnaire measured the level of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 The mean score of stress was 2.82 (\pm .39), depression was 19.23 (\pm 7.70), coping styles was 2.42 (\pm .42),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was 2.81 (\pm .4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four variable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of a nursing major. Str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roblem focused coping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Emotional focused coping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problem focused coping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Conclusion:** From the studies reviewed, one can expect a positive effect on decreasing stress and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when the nursing educators use counseling and instruction for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tress, Depression, Coping behavior,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ang, In Sun

Department of Nursing, Korean Bible University

205, Sanggye7-dong, Nowon-Ku, Seoul 139-791, Korea

Tel: 82-2-950-5485 Fax: 82-2-950-5485 E-mail: agape90@bible.ac.kr